

깊어가는 가을... 공연 나들이

결작 뮤지컬의 새로운 변신 '뉴 그리스'

내일 전남대 음악교육과 정기음악축제

전남대 음악교육과(학과장 정애련)는 매년 한차례씩 열리는 정기 음악축제에서 정통 클래식 프로그램 뿐 아니라 다양한 뮤지컬 작품을 무대에 올려왔다.

11일 오후 7시 전남대 예술대학 예향홀에서 열리는 올해 공연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유명 뮤지컬 '그리스'를 새롭게 각색한 갈라쇼 '뉴 그리스'로 '그리스'의 스토리를 따라가며 다양한 뮤지컬 곡들을 삽입했다.

'Summer night' 'We go together' 등 '그리스' 삽입곡과 뮤지컬 '드림걸즈'의 'Mooning', '미스 사이공' 중 'Sun and moon', '지킬 앤 하이드' 중 'A new life' 등을 만날 수 있다.



남의천 정애련

1부에서는 생상의 '두대의 피아노와 8개의 손을 위한 '죽음의 무도'(연노을·이다은·배지수·이큰기쁨), 등이 연주되며 남의천 교수와 정애련 교수가 각각 '꿈'과 'I will wait for you'를 들려준다. 전석 무료.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애뜻한 사랑 '수양별곡' 무대에

연극문화공동체 DIC, 오늘부터 공연일번지 소극장

연극문화공동체 DIC가 애뜻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수양별곡'을 무대에 올린다. 10일~13일, 17일~20일 오후 7시30분 공연 일번지 소극장(금남공원 옆).

주인공은 부모를 잃고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드들이, 동네 사람들의 손에 길러진 드들이는 마을 총각 수양이와 사랑을 만들어 가지만 동네 지주 최진사는 호시탐탐 드들이를 눈독이다.

드들이를 차지 하고 싶지만 여의치 않자 최진사는 자신의 땅을 소작하며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해 결국 드들이를 손에 넣고 만다.

무용과 연극을 결합한 독특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작품은 정문희씨가 희곡을



쓰고 연출을 맡았으며 문진희·이현숙·박선영·손가라·은초롱씨 등이 출연한다. 안무는 나윤정씨가 맡았다.

티켓가격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원. 전화예매 30% 할인혜택. 문의 062-514-432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전남우리가곡 부르기 12일 호남신학대 티브라운

가을 내음 물씬 나는 우리 가곡을 부르며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전남우리가곡 부르기(매월 둘째주 금요일) 10월 행사가 12일 오후 7시30분 호남신학대 카페 티브라운에서 열린다.

별써 47번째 모임을 갖는 회원들은 이날 이수인 곡 '사랑의 노래', 임금수 곡 '사랑하는 마음', 김광자 곡 '가을 그리고 강물', 조두남 곡 '그리움' 등 익숙한 곡들을 함께 부른다.

이번 달 초대 작곡가는 동요 작곡가로도 유명한 전주선(한국예술가곡연합회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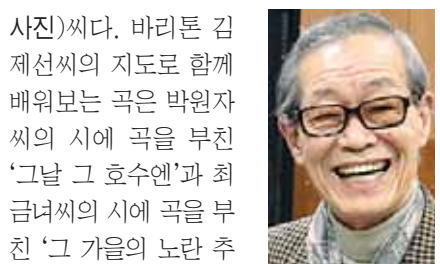


사진)씨다. 바리톤 김제선씨의 지도로 함께 배워보는 곡은 박원자씨의 시에 곡을 부친 '그날 그 호수엔'과 최금녀씨의 시에 곡을 부친 '그 가을의 노란 추억'이다.

회비 1만원을 내면 차와 간단한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문의 010-2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동네잔치 된 '아트광주' 광주문화재단 손 댄다

시, 별도 팀 꾸려 추진 검토... TF팀 의견 수렴 차별화 된 컨셉·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돼야

광주문화재단이 '아트광주'사업에서 손을 댄다. 지난달 9일 폐막한 '아트광주 12'가 시민·컬러터·갤러리들에게 모두 외면받는 등 홍보·마케팅 부재, 전문성 결여 등으로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다.

광주시는 9일 광주비엔날레와의 시너지 효과를 겨냥해 창설했던 지역 유일의 미술장터 '아트광주' 사업을 더이상 광주문화재단에 맡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측은 "여태껏 아트광주를 맡아 추진했던 문화재단의 내부 역량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가 직접 별도의 팀을 꾸려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를 위해 먼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TF팀을 구성, 아트페어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결국 지난 2010년 광주비엔날레와의 시너지 효과를 겨냥해 창설된 '아트광주'는 운영주체가 광주비엔날레(2010년), 문화재단(2011~2012년)을 거쳐 광주시로 세 차례나 바뀌는 우여곡절을 거쳐 치러지게 됐다.

문화재단은 광주비엔날레재단에서 넘겨

받아 행사를 진행했던 지난해 짧은 준비기간 등으로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데 이어 올해 부실한 홍보 마케팅 전략과 전문성 결여 등을 드러내면서 '국제미술장터'를 '동네 잔치'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올해 열린 아트광주의 경우 시민·기업·컬러터에게 외면받아 행한 전시장을 만드는가 하면, 국내외 유수 갤러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는데 실패한데다, 참여 갤러리 모집에도 급급해 작품 심사나 선정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여기에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 후원 감소와 예산 부족도 맞물리면서 지역 미술계에서는 정체성 없는 구색맞추기식 행사에 대한 폐지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광주시는 문화재단이 아트광주 사업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 외에 전문인력 투입을 비롯한 '아트광주' 활성화 방안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행사를 축소·폐지하는 게 아니라, 광주시가 책임지는 형태로 진행되는 점에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역 유일의 국제미술장터라



지난 9월 5일~9일까지 열렸던 '아트광주 12' 행사장을 관람객들이 둘러보고 있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는 명성에 어울릴만한 행사로 치러내지 않겠다는 얘기다.

지역 미술계에서는 이와 관련, 자체에 '체계적이고 강력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지자체·지역 공공기관·기업 등이 머리를 맞대 열약한 지역 미술 시장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인적 네트워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미술 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국내외 갤러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타깃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 30개가 넘는 국내 아트페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차별화 방안과 열약한 지역 미술시장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최근 열렸던 광주국제아트페어 평가 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은 '차별화된 컨셉', '아트시장 형성', '홍보 전략 강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에 정동채씨

11월8일~12일 메가박스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9일 광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에 전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씨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올해 광주국제영화제는 '평화를 위한 희망'을 주제로 오는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메가박스광주 등에서 열린다.

영화제에서는 지난해 김대중평화센터와 공동으로 '김대중노벨평화영화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한다. 문의 062-228-996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윤미술관, 市 보조금 받아 아들 전시회 '논란'

지원금 440만원으로 '비엔날레 협동청년작가전' 추진

국관장 "추진했던 설치작가 비엔날레 참여로 불가피"

광주 한 사립미술관이 광주시의 지원금을 받아 해당 미술관장의 아들 전시회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동구 소재된 국윤미술관(관장 국중효)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012 광주비엔날레 협동청년작가전'이라는 명칭의 전시를 연다.

광주시 후원으로 이뤄지는 이번 전시는 도심 건축 구조를 형상을 닮은 설치 작품을 선보여온 국광운씨의 초대전으로, 광주시는 지난 5월 국윤미술관이 제출한 '사립미술관 운영 및 전시사업 지원' 신청서를 검토한 뒤 전시 보조금 명목으로 440만원을 지원했다.

국광운씨는 국윤미술관장이면서 서양화가인 국중효씨의 아들로 건물 소유주는 국

관장의 부인이다.

결국 자신이 관장으로 있는 미술관에 아들 초대전을 추진하면서 광주시 보조금을 받아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료로 미술관을 빌려줄 수 있는데도, 금까지 받아 전시를 추진한 데 따른 '도덕성' 논란에서 비껴갈 수 없는 형편이다.

보조금 지원은 제 9회 광주비엔날레(9월 7일~11월 11일)를 계기로 이 기간 지역 미술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광주를 찾는 국내외 미술계 인사 및 애호가 등 방문객들에게 비엔날레 외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결정됐다.

광주시는 당시 국윤 미술관을 비롯, 의재미술관·우제미술관·은암미술관·무등현

대미술관 등 5개 사립미술관에 각각 운영비 1000만원과 440만원의 전시 보조금 등 모두 7200만원을 지원했다.

이에따라 은암미술관은 'Metal & Body interaction'전(9월 5일~15일)을, 의재미술관 '감성마을'전(9월 5일~11월 11일), 우제미술관 '개화(開畫) 속의 세가지 빛-Three Colors' 전(9월 4일~9월 26일)전, 무등현대미술관 '다원주의'(9월 4일~11월 4일)전을 진행했거나 추진중이다.

국관장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애초 다른 설치 작가를 포함한 전시를 추진했는데, 해당 작가가 뒤늦게 비엔날레에 참여하면서 제외됐고 아무 작가나 초대해 전시를 꾸밀 수도 없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연말 송년모임 예약 받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요리전문 비즈니스 호텔그 명성 그대로~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휴플러스 건너편)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맛집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